

뇌허·효성·미당·지훈...불교사상 확대

6월 8일 한국불교사연구소 근대학자 재조명 세미나서

한국의 인문학과 불교학 기반을 다진 근대 학자들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6월 8일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제4차 집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뇌허 김동화, 효성 조명기, 미당 서정주, 지훈 조동탁 등의 불교사상이 집중 분석됐다.

사상을 살릴 수 있지만, 태고 보우로 보면 중국 인쇄종 맥을 잇는 게 된다"며 "조계종이 선교양종을 아우르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효성 조명기의 불교사상 핵심은 통불교 총화·화쟁론 펴내"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문학자이자 불교학자였던 효성 조명기(曉城 趙明基, 1905~1988) 박사를 조명했다.

고 교수는 "조명기는 불교학 발전을 위해 온몸을 바쳤다. 그는 원효 저술의 발굴과 《원효대사전집》 출간, 《고려대장경》 영

"뇌허 김동화, 불교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연구정신 이어야"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는 뇌허 김동화와 박사의 불교관에 대해 "김동화는 한글불교 정체성을 회복정신에 의한 종합불교로 생각했다. 그 전형은 원효였다"며 "특정 경론과 종파연구를 넘어 불교 전체를 두루 연구했다"고 말했다.

김동화 박사는 생전 "해방 후 한국불교의 범위가 선종 중 일개 종파인 조계종에 국한됐다"고 폭넓은 연구를 주장해 왔다. 특히 《한국불교사상의 좌표》(1984)에서 "고려 5교 양종, 조선 11종 등 종파를 들며 선교 양종으로서 불교의 면모가 국가운영 상 재정 궁핍 등으로 통폐합을 강요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자경 교수는 "김동화는 선교 양종이던 정통 종단을 선종으로 단일화가 수많은 신흥종단의 난립이 이어졌다고 봤다"며 "그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승하려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회통불교로서 한국불교의 맥을 이어가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 교수는 "김동화는 한국 선의 종조를 도의 내지 지눌로 보면 한국 불교의 역

근대 한국 통불교 전통 세워

사문학 세계 등에 불교문화 담야

근대사회와 불교 소통길 제시

인 간행과 《한글대장경》 기획 편찬 등 불교연구의 기초자료 서지류와 금석문(金石文) 발굴에 평생을 보냈다"고 소개했다.

고 교수는 이어 "조명기는 원효학과 의천학 연구를 통해 불교사상사의 지평을 넓혔다. 특히 '총화론'과 '화쟁론'을 통해 한국불교를 '대승을 초월한 통불교'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또 "그의 통불교론은 이후 한국불교의 성격 규명에서 주요 담론으로 자리했으며 김동화, 이기영, 안계현, 김영태



뇌허 김동화



효성 조명기



미당 서정주



지훈 조동탁

등으로 계승돼 한국불교사상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고 말했다.

"미당 서정주 시세계 불교 기반해, 신라 정신은 불교정신"

송희복 진주교대 교수는 미당 서정주의 시적 세계가 불교적 상상력에서 비롯됐음을 들었다. 송 교수는 "서정주의 생각에서 불교는 사상의 기저, 기준을 이루고 있다"며 "절임은 때 '중이 안 되더라도 머리는 깎아야 한다'는 박한영 스님의 말에 따라 거사로서 입산한 경험과 중앙불교전문학교와의 학연으로 불교는 삶과 생각의 근원적인 바탕으로 형성됐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그에게 있어 불교는 '탈근대성을 위한 대안'으로 다가왔다"며 "이는 당시 창의적 제안이었던 신라정신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서정주가 구현한 신라정신은 우리 문학 사상 독자적인 미학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신라정신은 원시 종교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그의 중기 이후 시세계를 지배하는 중요 원리가 됐다.

송 교수는 "현대 신라정신을 비판하는 이들은 이를 피시즘의 표상으로 간주하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신라정신은 매우 절

박한 것이었다"며 "서정주는 현실의 벽에 부딪쳐 절망한 것을 잘나고 간주하고 싶어 했으며,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영원으로 생각하고 싶어 했다. 이러한 경향이 신라와 접하게 됨으로써 소통의 공간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훈 조동탁, 승무 시작으로 불자 길 걸어, 불교 기반한 인식론 전개"

조현설 서울대 교수는 "조지훈은 학자이기에 시인이었다"며 "1939년 발표한 《僧舞》는 그와 불교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언시였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승무는 춤의 표현 형식으로 보면 정중동, 동중정의 조화미를 극도로 추구하고 있지만 표현 내용으로 보면 비승 비속의 경계를 나타낸다"며 "이는 일찍이 원효가 추구했던 원효회통 정신과도 닿아 있다"고 해석했다.

조 교수는 "조지훈은 《승무》를 발표한 다음 해 월경사 강원에서 비승비속 뜻이 담긴 '중곡'이란 아호를 자작하는 등 불교 인으로서의 길을 걷는다. 이후 문학사 또는 문화사학자의 길을 걸었지만 그 인식론 저편에서는 불교정신이 크게 자리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yfnuul.com

학술 · 문화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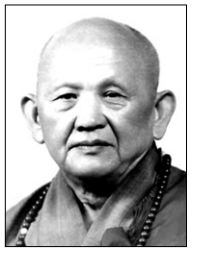
“불교발전 위한 소신공양 뜻 이어야”

김선근 교수, 총담 스님 조명 학술강연회에서

1998년 6월 남북평화통일과 종생제도, 불교발전을 기원하며 소신공양했던 태고 종 승정 총담 스님의 탄신 100주년과 열반 15주년을 기념하는 학술강연회가 6월 12일 가평 감로사에서 열렸다.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는 이날 '총담 스님의 소신공양과 불자들의 역할' 발표를 통해 총담 스님(사진)의 삶과 사상 등을 조명했다.

김 명예교수는 "평생 수행에 전념했던 총담 스님은 스스로에게 엄격하면서도 남들에게는 늘 온화한 성품을 지녀 많은 불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며 "총담스님은 입적하기 10년 전부터 소신공양 원력을 세웠다. 남북 통일과 사회 안정, 불국경



토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원력이었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스님은 평소 실직자와 북한 동포들에 대한 자비행을 강조하셨다"며 "후학 들은 스님의 사상을 잘 이어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 앞서 총담화상문도회와 감로사는 스님을 추모하는 영산재와 함께 사진전도 진행했다. 또 감로사는 불자들이 자신들의 발원을 담아 직접 불상을 조성·봉안하는 '원불, 내손으로 조성하기' 불사를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서산대제 국가제향 복원 통한 호국불교 살피

불교사회연구소, 호국불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불교계를 중심으로 서산대제 국가제향 복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에 대한 당위성과 호국불교 정신을 학술적으로 고찰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6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서산대제의 국가제향 복원'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정희 교수(前 성균관대 사학과)가 '조선시대 전란사에서의 이승준의 위상과 역할'이란 주제로 기조발제하며, 김상영 교수(중앙승가대 불교학과)가 '표충사 춘추제향 설화의 역사와 의의'를, 최인선 교수(순천대 사학과)가 '표충사 춘추제향의 현재적 의미와 복원 방안'을 주제 발제할 예정이다. 신종원 기자

범패 전래한 진감선사 재조명된다

고산문화재단, '진감선사 혜소의 생애와 사상' 학술세미나

불교음악의 원류인 범패를 이 땅에 전하고 쟁계산문을 개산한 신라의 고승 진감선사 혜소 스님을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고산문화재단(이사장 영담)은 오는 6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장충동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진감선사 혜소의 생애와 사상 - 진감선사 혜소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최현 부산대 국악과 교수가 '진감선사 혜소와 한국의 범패'를 주제로, 조병환 서강대 사학과 교수가 '진감선사 혜소와 한국의 선불교'를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임미선 전남대 한국음악과 교수, 김병근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사상·진감선사 혜소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강의조명교수가 참여한다. 신종원 기자

동국대 불문연, '불교학보' 64집 발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중욱)은 《불교학보》 제64집을 펴냈다. 이번 《불교학보》에는 불교학 분야에는 △초기 중국불교사에 보이는 사리법전소문경의 위상에 관한 연구(최은영) △ '해심밀경'에 나타난 심의식의 비밀에 대한 고찰(백진순) △하쿠인 선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이철신) 등이 실렸다.

《불교학보》 제64집을 펴냈다. 이번 《불교학보》에는 불교학 분야에는 △국가불교의 '호법'과 참여불교의 '호국': 호국불교의 전개와 의미(고영섭) △고려시대 불교금석문의 변천(김기종) △표충사에 대한 유교계와 불교계의 인식(이철현)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추사·초의 교유, 조선후기 차문화 중흥”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소장 밝혀

6월 12일 과천 추사박물관 개관기념 학술세미나서

"한국의 차문화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지만 조선 시대 쇠퇴기를 겪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차문화는 더욱 쇠퇴해 차는 감기, 이질을 다스리는 약(藥)으로 전락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문화를 다시 중흥 시킨 인물이 바로 초의 선사입니다."

조선 후기 차문화를 주도한 추사와 초의의 역할을 새롭게 밝힌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과천 추사박물관이 6월 12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개최한 '추사의 삶과 교

유' 학술대회에서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소장(사진)은 조선 후기 차문화 발달에 추사와 초의의 교유관계가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고려시대에는 왕실과 승려계층이 차문화를 주도해 점점 사치해지는 폐단이 생겼으며 이는 조선 시대 차가 왕실로부터 배격된 요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이런 풍조로 인해 임진왜란 등을 거치며 차문화는 맥이 끊겼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조선 후기 초의 선사는 추사와 신위 등 차의 안목을 갖춘 인물들

의 조언과 후원에 힘입어 사원에 이어진 차를 다시 복원했다"며 "조선 후기 차문화 중흥은 초의차를 통해 경화사족으로 유다층이 확산됐기에 가능했다"고 소개했다.

박 소장은 초의선사가 경화사족들에게 유다층을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에 추사가 있음을 들었다.

박 소장은 "추사는 초의와 경화사족들의 교유에 가교가 됐다"며 "초의차의 최고 애호가였던 추사는 자신과 교유했던 인사들에게 초의를 소개하여 차문화 중흥에 일조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추사는 과천 초당시절 차를 연구하는 등 차에 심취했으며 추사가 돌아간 후, 초의는 한 겨울을 과천 추사 집에서 보내는 등 과천은 차문화 유적지로서



노덕현 기자

청담 ART 십이지상 천연황옥(印)

존경하는 스님! 불자님 보살님 사주대중님들!
'나'를 대신하는 인감도장 낙관 법인감 등을 제대로 된것을 갖추고 계십니까?

혹, 막도장이나 싸구려 등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여기! 세계 하나뿐인 '명품'이 있습니다.
이런 천하의 명품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인의 띠(十二支狀)을 형상화한 천연황옥(印)

주문 ⇒ 생년 월, 일, 시 성명감정 ⇒ 수작업 ⇒ 배송



범띠

소띠

토끼띠

양띠

용띠

지금 바로 스마트폰 및 인터넷에서 주소를 검색하여 클릭하시면 조각예술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WWW.CHEONG DAM ART WORLD.COM
靑潭 아트월드 co (031-912-7112)



(300여년을 이어온 팔공산 염불승)

사라져 가는 팔공산 범음 범패 염불소리를 살리고자
염불인생 50년을 수행해온 (동헌)소승이 교육원을
개원하고 제 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신 스님이나 차기후계자의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소승에게 맡겨주시면 책임지고 성심껏 지도해드리겠습니다.

(교육 현황)

※ 본강원에서는 일반교육은 없습니다.

초급 의식 염불과정	
속성	3개월
	주 1회
	매주 : 수요일
	오후 3시~6시까지

초급 교육 과목
요령묵타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석, 조석종성염불, 각단에불 행선축원, 사시마지불공, 관음사시 구병사시, (상가)시달림염불.

중급 의식 과정	
속성	7개월
	주 1회
	매주 : 금요일
	오후 3시~6시까지

중급 교육 과목
시련 상심이은, 104위신중적법, 화천수, 당일천도 및 49제의의, 다비편 방생편, 각종고사 불상 및 탱화점안, 위패점안법, 전오리법, 시물 지위점안법, 축원문작성, 요점식, 천수부, 정근부 신중적법, 가지계부, 화정(회심곡)

작 법	
3개월과정	주 1회
	매주 : 토요일
	오후3시~6시까지

교육 과목
복청계,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화의제바라, (오공양작법)

모집인원	초급생 : 20명
	중급생 : 20명
	작 법 : 10명

27기생 모집기간 : 수시모집
27기생 첫수강일 : 2013년 6월 26일 (수요일, 초급반, 수업시작)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원에 직접나오셔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2동 871-1번지(우방미진하이츠)정문앞은편

TEL : 053)781-4200. 851-2666 / HP : 010-3424-0108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 생명공학 ※대리점 모집중